

送年の感懷

저무는 丙辰年の 길목에서 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돌이켜 봅니다.

먼저 끊임없이 聲援을 베풀어 주신 科學技術界 先輩同志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누구누가 해를 보내며 갖는일은 年初의 計劃과 抱負가 얼마만큼 成就되었느냐 생하여 보는 것이겠습니다. 새 歷史를 創造하는 科學技術人으로서 民族的 課業을 저보겠다는 굳은 다짐과 우리 科學技術界가 計劃하였던 일들이 國家的 召命에 어느만큼 副應하였는가 自問自答해 볼 때 먼저 謙虛히 悚懼함이 앞서 깊은 反省에 잠깁니다.

심은대로 걸운다는 값진 敎訓을 되씹으며 迂餘曲折속에 지나온 일들을 回顧하면 조금더 努力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所信것 살아왔지 않은가고 配抱를 펴봅니다.

우리 國民들이 이룩한 第3次 經濟開發 5個年 事業이 成功裡에 마무리 된것은 自他가 公認하는 바이고 80億弗에 육박한 輸出高는 當初의 目標를 훨씬 超過한 것으로 우리의 國力伸長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經濟成長이 바야흐로 中進經濟圈에 돌입했고 머지않아 先進圈 隊列에 參與케 될것입니다.

이같은 高度의 經濟成長이 類例없이 短時日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우심은 勿論이고 다음은 우리 온 國民이 마음과 뜻을 모아 渾然一體를 이루어 勤勉 自助 協同을 꾀하는 새마을運動을 遂行해 나감에 基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實感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견스럽고 감사한것은 금년을 기해 主穀食糧自給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科學技術界를 살펴보면 제3회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서 걸은 成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國內外 科學技術者간에 科學知識과 技術交流를 이루었으며 在外 高級頭腦들이 參與하는 契機가 마련되었고 약진하는 祖國의 發展相을 보여줌으로서 그분들의 가슴속에 韓國人의 슬기와 기개를 심어주게 되어 祖國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새 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科總은 傘下 142個學會團體의 求心體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 學會의 活動이 대단히 活潑하여 今年度 研究論文만도 3000여편에 達했으며 學術活動으로 800여회의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학회활동이 이같이 활발해 지고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진흥이 크게 일고 있다는 뜻이며 產業技術이 向上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한 科學技術人의 殿堂 과학기술회관의 竣工은 科總創立 10周年과 함께 큰 意義를 심었고 科學技術人의 總和團合을 보여준 것입니다.

科總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의 組織을 強化하여 1마을 1과학자 技術結緣을 200個 마을로 擴大하고 集中的인 科學營農技術普及 및 保健衛生 環境개선 綜合開發을 指導하여 성과를 걸우었으며 제1회 全國새마을 技術指導 事例發表會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끊임없이 持續될 이 事業은 새마을運動의 促進劑가 될것이며 科學技術人의 頭腦

알차게 整理하자.

奉仕를 통해 잘사는 새마을의 所得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先進 科學技術情報의 習得과 번역활동에 效率化를 提高, 産業技術 應用에 寄與될 科學技術用語 제1집이 發刊配布되어 各界의 呼應을 받은바 있으며 제2집 事業이 推進中에 있습니다. 또한 科總에 新設된 科學技術政策研究委員會는 우리가 안고있는 懸案問題들을 研究 政府와 科學技術界의 發展에 효시적 역할을 하게 될것이 期待됩니다.

곧 이어지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科學技術 振興에 長期的인 計劃이 比重을 갖게되어 韓國科學財團 設立法이 通過되었고 科學技術에 投資計劃이 늘어난것은 참으로 慶賀할 일 이었습니다. 基礎科學 研究의 바탕이 될것이며 學會學術活動의 支援 源泉이될 科學財團은 科學韓國의 希望을 새롭게 해줄것입니다.

약간의 개선이 요하지만 國家技術資格制度의 實施는 技術人力 向上에 質的水準을 높이게되었고 技術檢定公團의 發足은 工業立國의 土臺를 더욱 다지는 技術技能人力을 養成하는데 크게 寄與되리라 믿습니다.

이같은 제도를 갖추게된 76年度는 科學技術界의 振興에 이바지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번 에너지 波動을 目前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뒤아온 經驗을 가지고 돌과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科學技術人에게 부과된 使命일 것입니다.

安保體制를 더욱 確立하고, 基礎科學의 정립을 期하고 科學技術人力을 지변확대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育成, 再訓練을 期하여 80年代의 工業韓國, 農業韓國, 自主韓國으로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가슴 벅차게 떠오르는 送年の 感懷를 하나하나 整理하여 보다 알찬 計劃을 樹立하는 우리 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서정체신에 全力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經濟成長은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에따를 不條理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發展을 거듭할수록 이에 못지않게 파고드는 不條理를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 우리 科學技術人은 솔선해야 할것입니다. 不足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燈 節約 종이한장 절약 그리고 재활용하는 일과 사치와 낭비를 끊고 自立의 時期까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科學技術의 꽃봉오리는 점점 부풀고 있습니다. 80年代 科學韓國의 꽃을 피우기위해 총진군 하여야 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協調와 聲援을 보내주신 政府當局과 江湖諸賢 그리고 會員同志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드리며,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이 있으시기를 빌고 送年の 人事를 드립니다.

1976年 12月 22日

會長 金允基